

社 說

“편 갈라야票 이득” 싸움 부추겨 갈등을 먹고 사는 한국 정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이 농성이처럼 커지고 있다. 처음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와 반대하는 의사들 갈등이 중심이더니 이제는 간호 조무사, 응급구조사 등까지 가세해 곳곳에서 갈등의 싹이 터지고 있다. 다른 지역과 충분한 조율 없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만 때 내 별도 입법하려고 하니 잠복해있던 보건 의료계 갈등이 일거에 수면 위로 드러나며 폭발한 것이다.

정치권이 갈라 치기 입법으로 갈등을 조장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변리사·공인중개사 등과의 업무 영역을 놓고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입법하려다 업종 간 싸움판을 만들었다. 지난해 미용사 출신 의원이 미용 산업을 진흥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이용사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한우 농가 이익 대변 법안에 한돈 농가들이 반발하며 ‘한돈 산업 진흥법’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법 조항은 토씨 하나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합의 를 끌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한쪽 편만 들거나 이해관 계를 조율하는 절차 없이 덜컥 처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조

北 해킹에 보안 점점 거부한 선관위, 무얼 감추겠다는 건가

중앙선거관리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 점검 권고를 거부했다. 정부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려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아무리 헌법상 독립기관이어도 해킹 위험이 닥쳤다면 보안 기관의 점검을 받는 게 당연하다. 선관위 입회 아래 해킹 점검을 하는 것이 정치 중립성과 무슨 관계가 있나.

국정원은 지난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년 선관위에 메일과 전화로 통보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국정원이 통보 내용을 공개 하지 뒤늦게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받는 통상적 해킹 의심 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만일 선관위가 해킹을 당해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투·개 표 조작, 시스템 마비 사태가 생기면 치명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와 같은 투·개표 장비를 쓰는 이라크에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다. 선관위는 “자체 점검 외에 외부 자문 평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할 뿐 북 해킹을 어떻게 막았고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이라크와 달리 외부 통신망과 단절돼 있어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친 정권 인사들이 선관위를 장악해 선거 때마다 민주당 편을 들기도 했다. 민주당의 ‘100년 친일 청산’ ‘적폐 청산’ 구호는 허용하고, 국민의힘의 ‘민생 파란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은 금지했다. 대선 때도 국민의힘을 비방하는 ‘신천지 비호 세력’ ‘술과 주술에 빠졌다’는 허용했다. 정권 하수인인 지적까지 들을 정도였다. 감사원이 소쿠리 투표 등에 대해 감사하러 하자 “헌법상 독립 기구라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버텼다. 이번엔 중립성과 관계도 없는 해킹 점검까지 못 받았다고 한다. 건드려선 안 될 성역인 양 행동하며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니 “도대체 무엇을 감출 게 있어서 저러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연락도 안 된다”던 사람이 임차료 대납, 또 금 간李大표 해명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씨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첫 도전했던 2006년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측근이다. 이 대표는 작년 2월 대선 TV 토론에서 김씨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뜻일 것이나, 임차료까지 내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대표 발언의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됐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김씨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김씨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전후인 2014~2016년에도 이 대표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어떻게든 이 대표와 연관 지어 보려는 억지”라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2014년 지인 2명을 통해 이 대표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냈고, 이 대표가 2016년 고항 안동을 찾았을 때도 현장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업 초기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씨와 100여 차례나 통화했

다고 한다. 그런데도 가깝지 않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 대표의 거짓말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계 공 개발1차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골프 치고 식당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까지 공개됐다. 이 대표를 위한 대북 송금 사실을 쌍방을 관계자들이 다 인정했는데도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그가 성남시장 시절 ‘뇌물 방지용’으로 시장실 등에 설치했다고 홍보했던 CCTV는 아예 촬영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 때도 친형의 정진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지만 대법원도 거짓말이란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도 거짓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제 이 대표의 해명은 신뢰를 잃고 있다.

달콤한 힐링의 시대는 끝났다

광화문·부



어수웅

여론독자부장

가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유 의 나쁜 책들을 읽었던 대중이 뭔가 대오각성이라도 한 것일까.

개인뿐만 아니다. 국가와 세계도 장밋빛 전망과 미사여구의 계절은 마침표를 찍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의 신세를 보라. 유럽을 넘어 자유 세계 전체의 리더로 존경을 받았던 메르켈은 이제 수모의 대명사가 됐다.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도 구박하고, 심지어 폴란드도 압박 지른다. 달콤한 러시아산 가스가 영원할 거라고 믿고 흥청망청 취한 결과다.

독설 ‘세이노...’ 10주 연속 1위
독일·스웨덴의 수모를 보라
공짜 안보·미사여구 시대 끝나
개인도 국가도 안전벨트를

숙취가 끝난 뒤 남은 것은 부끄러움. 독일의 리더십은 자력이 아니라, 러시아산 가스와 미국의 공짜 국방 우산에 기댄 허상이었다는 깨달음이다. 한심한 처지의 스웨덴은 또 어떨까. 독재 정권에 쓴소리하던 ‘중립’과 ‘비동맹’의 상징은 제발 나토 가입을 운허해 달라고 애원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짹짹 놀라 비동맹 200년의 자부심을 버리고 가입을 신청했지만, 비민주 국가라고 쓴소리 들었던 당사자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만청 피우며 동의를 늦추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말하려면 별도의 지면이 필요하겠지만, 2차 대전 종전 이후 패전국과 신생국의 오늘을 이끌었던 무임승차의 시대는 이제 유효 기간이 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더 이상 공짜 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며, 중국은 더 이상 우리를 값싼 노동력의 공장과 주방으로 보지 말라 선언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만큼 중요한대선이란과 포용했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중국과 거래할 때 위안화를 쓰기 시작했다. 달리가 절대지존이던 시절이 끝났다는 의미다. 아프리카와 인도를 제외하면 선진국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출산이 급감, 인구 쇼크를 겪고 있다. 노인은 늘고 젊은이는 줄고, 연금 갭은 비어간다. 술과 장미의 나날은 끝나고, 곳곳에 계산서다.

달콤한 힐링만으로는 세계는커녕 나 자신도 구할 수 없는 시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법이다. 세계화는 끝났고, 덕담의 시절도 갔다. ‘세이노의 가르침’ 돌풍을 보며 예민한 흡수를 지닌 대중을 생각한다.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그 보상은 당연히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해서 돌아가는 법. 지금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하는 건 자존감이 아니라, 뭔가 필요할 때 제대로 머리를 숙이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안전벨트 꼭 잡아라. 제대로 된 침착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말뿐인 미사여구는 그렇지 않다. 국가건 개인건.

황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20] 천사의 혀로 노래하더라도

if you sing with the tongue of angels

“그의 음악에서는 청춘의 냄새가 난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재즈 뮤지션 쳇 베이커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한창 청춘의 냄새를 풍기며 트럼펫을 불던 쳇 베이커는 마약에 빠져 감옥을 전전하다가 전기 영화를 찍지는 제안을 수락하고 감옥에서 나온다. “이렇게 있으면 얼마 자궁 속으로 돌아간 기분이야. (it’s like I’m crawling back inside my Mama’s womb.)” 헤로인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연기하는 쳇 베이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 ‘본 투 비 블루(Born to be Blue·2016·사진)’의 한 장면이다. 오랜만에 쳇을 찾아온 옛 매니저 덕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연기 중인 쳇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쳇(이선 호크 분)은 이제 약을 끊고 ‘개 이빨처럼 깨끗하다(Clean as a hound’s tooth.)’며 음악으로 재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덕은 마지못해 다시 쳇의 손을 잡는다. 쳇은 음악에 해박한 자신의 상대역 제인(카빈 이조호 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둘은 음악을 매개로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제인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한 쳇은 운 없게도 길거리에서 시비에 휘말려 폭행을 당하고 트럼펫 주자에게 생명을



도 같은 앞니를 통째로 잃는다. 실의에 빠진 쳇. “트럼펫 못 불면 세상이 끝나?(So it’s trumpet or nothing?)” 제인의 책망에 쳇의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래!(yes!) 쳇은 제인의 극진한 애정 덕에 가까스로 무대에 복귀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약에 손을 댈다. 덕은 약의 힘에 기대지 말라며 만류한다. “천사의 혀로 노래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심벌즈인 거야. (if you sing with the tongue of angels but you have no love, then you’re a clanging cymbal.)” 하지만 쳇의 영혼은 이미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영화변역가

‘버려지고, 숨겨지고, 잊혀진 영웅’들을 위한 4가지 제언... 윤대통령에게 호소한다

- 1. 국군 포로·납북자 송환 전담 독립기관 만들어 주세요
- 2. 자력 탈출·탈북 국군 포로에 훈장 수여해 주세요
- 3. 서울 국립현충원 안장 허용해 주세요
- 4. 현충·국방 기념식에 초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세요

우리는 나라에 헌신한 분들에 눈·귀·입 달고 있다

한미 양국 6·25 영웅 10명의 영상이 뉴욕 한복판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상영되고 있다. 국내 전광판에도 등장했다.

- △ 맥아더 장군 △ 벤 플리트 부자(父子) △ 윌리엄 쇼 부자(父子)
- △ 딘 헤스 공군 대령 △ 탈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 △ 김영목 미육군 대령 △ 백선엽 장군 △ 김두만 공군 대장
- △ 김동식 육군 대령 △ 박정모 해병대 대령.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존처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과연 우리는 이 가운데 몇 분이나 알까? 풍전등화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들이지만, 아마 대부분 잘 모를 것이다. 대중적으로 맥아더 장군과 백선엽 장군 정도?

그나마 인천의 맥아더 장군 동상 수난은 거둬지고 있다. 방화·페인트칠에 철거 요구까지. 그뿐인가?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며 북한군 3개 사단을 궤멸시킨 백선엽 장군은 좌파의 방해 속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겨우 안장됐다. 하지만, 묘지 안내판조차 철거 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수많은 6.25 전쟁 영웅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좌파의 가짜 뉴스에는 열광하면서,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해서는 눈·귀를 철저히 닫고 있다.

아직도 100여 명 국군 포로가 버려져 있다

올해는 정전 70주년(1953~2023). 북한 탄광 지역엔 ‘버려진 영웅’ 100여 명이 아직도 생존해 있다고 한다. 평균 연령 90세가 넘는 고령이다. 이름하여 ‘국군 포로’. 책 대신 총 들고 전쟁에 나가, 북한군(또는 중공군)에 포로가 된 분들이다. 이들은 보통명사 ‘국군 포로’가 아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지아비이며, 얼굴도 희미한 누군가의 아버지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히 ‘버려지고, 숨겨지고, 잊혀진 영웅들’이다. 누구도 입에 올리려 하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하며 평양

을 들락거렸다. 하지만, ‘국군 포로’ 송환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풍산개만 안고 돌아왔을 뿐이다.

국군 포로=전쟁 중 헤어진 사람, 납북자=전쟁 후 헤어진 사람...기가 막힌다

10만여 명의 국군 포로 중 70% 이상이 사망한 가운데, 80여 분이 노구를 이끌고 자력으로 탈출·탈북했다. 그중 현재 13분이 생존해 있다. 우리 정부는 70년 넘도록 이들 국군 포로를 ‘나 몰라라’ 해왔다. 남북협상에선 국군 포로를 ‘전쟁 중 헤어진 사람’, 전후 남북피해자들은 ‘전쟁 후 헤어진 사람’이라고 합의해 주었다. 기가 막힌다. 이러니 누가 기꺼이 전장으로 향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보훈’을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강조하고 있다.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미귀환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 한미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만, ‘최고의 보훈’은 국군 포로 송환 문제 담당 조직을 강화하고 탈출·탈북 국군 포로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다.

국군 포로가 군비통제 대상인가?

다음과 같은 정책과 조치를 제언한다.

- 1. 미국의 DPAA(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 국군 포로 송환과

- 실종자 파악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 과정은 현재 국방부 군비통제과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묻고 싶다. 국군 포로 송환 문제가 군비통제 대상인가?
- 2. 자력 탈출·탈북 80분의 영웅들에게 무공훈장을 드려야 한다.
- 3. 그분들의 소원인 서울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해, 파묘 자리이라도 그분들을 모셔야 한다.
- 4. 생존해 계신 분은 현충일, 6.25,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단상에 올려 그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드려야 한다. 서해 수호 용사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준 대통령 아닌가.

늦었지만, 그래도 바로 해야 한다

미국은 전쟁 포로 출신이 대통령 후보(맥케인)도 되고 참전용사가 상원 의원(폼 코튼)도 된다. 그런데 우리 국군 포로와 참전용사들은 ‘버려지고, 숨겨지고, 잊혀진 영웅들’일 뿐이다. 이제라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너무 많이 늦었다. 늦었기에 바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한다.

—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18대 국회의원)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합함으로 5월 1일 게재 되었습니다.